

# [1000자 건강 조언] 사랑니 빼자니 아프고 그냥 두자니...

기사입력 2003-11-20 16:12 최종수정 2003-11-20 16:12

“정말 귀찮은 것 빼버리지. 충치만 생기고 어금니를 괴롭히는

사랑니는 우~ 빼버려!”

그립 동물원의 ‘사랑니’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사랑니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이나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정말이지 충치만 생기는 귀찮은 치아는 도대체 왜 생겨나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것일까 하는 의문 이 든다.

사랑니는 사랑의 아픔을 앓을 때쯤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국에서 는 지혜로워질 때쯤 생긴다고 해서 ‘위즈덤 투스’(Wisdom Tooth)나 지치(智 齒)라고도 부른다. 신라 시대 때 왕을 칭하던 ‘이사금’이 치아의 많고 적음 을 겨뤄 왕을 정했다는 얘기에서 유래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리고 보면 사랑니 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사랑니가 났다고 해서 모두 다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래 가사처럼 충 치가 생겼거나 누워있어서 앞쪽 어금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꼭 빼야 하지만 똑바로 맹출했고 관리도 잘 돼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굳 이 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앞쪽 어금니가 심하게 상해 발치한 경우 사랑니가 보철 치료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한다.

악골이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다 보니 현대인에게는 사랑니가 자리잡 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래 턱뼈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 니가 누워서 나는 경우도 많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앞쪽 어금니 자리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앞쪽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겨 붓고 피가 난다. 게다가 사랑니는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칫솔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양 또한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치를 권하는 편이다.

뼈 속에 묻혀 있는 사랑니의 경우 눈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확인 하기가 어렵고, 치과에 있는 파노라마 X-레이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사랑니 역시 통증이 있거나 앞쪽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료 하는 것이 현명 한 방법이다.

<전태두 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원장>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24&aid=0000006238>

---